

美-덴마크·그린란드 회동…접점 찾기는 실패

백악관서 고위급 약 1시간 협의
이전 해소 실무그룹 구성 합의

트럼프 “우리 그린란드 필요”
덴마크 “레드라인 존중하라”

북극의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만난 미국과 덴마크가 접점 찾기에 실패했다.

미국과 덴마크·그린란드는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약 1시간 동안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에선 JD 뎀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라스무센 장관은 기자들에게 그린란드를 둘러싼 ‘근본적인 이견’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양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 방안에 대해 각자 입장을 교환했지만, 라스무센 장관은 기자들에게 그린란드를 둘러싼 ‘근본적인 이견’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덴마크·그린란드는 다만 이같은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실무 그룹을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라스무센 장관은 기자들에게 “우리 관점에서 그 실무 그룹은 미국의 안보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초점을 맞추되, 덴마크 왕국의 레드라인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덴마크의 ‘레드라인’이란 미국에 대한 그린란드 영유권 이양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모츠펠트 장관은 그린란드가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바라지만, 미국령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



14일 시위대는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국민의 것’이라는 슬로건으로 미국 영사관으로 행진에 참여했다.

연남

라고 강조했다.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지만, 우리는 그것(그린란드)이 필요하다”며 “뭔가 해법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의 공동 안보 측면에서 그린란드를 확보하려고 한 미 대통령이 자신이 처음은 아니라고 상기시켰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직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을 시도한 바 있으며, 그보다 앞서 20세기 초에는 미국이 카리브해의 버진아일랜드를 덴마크로부터 사들이면서 그린란드 영유권

문제도 다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가 “오랫동안 중요한 주제였다”며 마르크 워터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도 자신과의 통화에서 그린란드와 관련해 “어떤 조치가 나오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점령하려고 하면 덴마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며 “지난주 베네수엘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아니면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할 것이라며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스무센 장관과 모츠펠트 장관은 백악관 회담 이후 미 연방 상원의 ‘북극 코커스’ 소속 의원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AP 통신이 전했다.

초당적 성격으로 꾸려진 미국 의회 대표단도 이번 주 후반 코펜하겐을 방문해 덴마크·그린란드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다.

연합뉴스

러 공습에 전력 끊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공습으로 인한 전력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부문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AFP 통신이 보도했다.

비상사태 선포는 지난주 후반부터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러시아의 드론·미사일 공격이 본격화하면서 한겨울 전력과 난방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다.

수도 키이우는 러시아의 공습으로 한때 전체 아파트 건물의 절반 기량에서 전력과 난방이 끊겼고, 지금도 400여개 아파트 빌딩에서 며칠째 난방이 꺼진 상태다. 최저 기온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한파 탓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회의를 소집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로 들어오는 전력 수입량을 확 늘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젤렌스키 대통령은 예비 전력에 대한 규제 완화와 야간 통행금지 규정 재검토 등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 주민들이 몸을 녹이고 따뜻한 음식과 음료를 섭취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기 등을 충전할 수 있는 비상 한파 쉼터를 1200여개 설치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전력·난방 복구 작업을 둘러싼 대통령과 키이우 시장의 설전도 벌어졌다.

포문을 연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이었다. 그는 러시아의 공습으로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최근에도 충분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는 긴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자 젤렌스키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비탈리 클리치코 시장은 “그런 언급은 수천 명의 헌신적인 작업을 깎아내리는 것”이라며 “손에 무기는 없지만, 씁쓸한 노력을 통해 그들은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주)호원테크

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주)호원테크는
설비기획,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